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목장 나눔지 (2024년 3월 17일 - 3월 23일 주간)

1 부: 자녀들과 함께 (Olive Blessing)

1. 다함께 즐겁게 찬송하기

* 기쁨으로 찬양

- 81 장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 82 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 찬송가

- 212 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287 장 예수 앞에 나오면

2. 감사의 나눔과 축복 기도(Olive Blessing)

- *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자녀들이 지난 주를 지내며 가장 감사했던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
- *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목자님의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2 부: 따로 모여서

3. 말씀 나누기

“꺾데기 신앙의 위험성” (삼상 6:1-16)

1)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알맹이)보다는 꺾데기에 치중하고 있는 면은 없으신지요? 만약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다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삼상 4 장~6 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담고있습니다. 블레셋은 왜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는지요? 블레셋 진영에서 벌어진 일들을 어느 한 분이 대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 하나님의 언약궤는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성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백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 연합교회/목장 광고 및 생일 축하

* 지난 주일 주보를 보면서 교회의 중요 행사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의논할 사항을 나누어 봅시다.

5. 삶의 나눔

- * 목원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기도 응답 받았던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 지난 주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 주변에 계신 나의 VIP 들이 누구인지, 그 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6. 합심 기도

- * 오늘 목장에서 서로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목장 안에서 비밀을 서로 지키며 기도합니다)
- *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 * 개인 혹은 목장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VIP 를 위해서
- * 성경통독 일정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설교요약:

삼상 6:1-16, 꺾데기 신앙의 위험성

* 마음의 문을 열며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시대, 본질은 잊어버린 채 현상만 남아 있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진정한 위기는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요? 알맹이는 사라지고 꺾데기만 남아 있는 것을 자신만 모를 때, 그 때가 진정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를 다루는 사무엘상 4-6 장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많은 교훈을 독자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 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4 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다

5 장: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머물다

6 장: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다

* 삶의 열매를 거두며

-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 "내뒤통수를 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 탓하지 말고, 뼈아프더라도 내 뒤 통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
-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패배를 맞이했을 때 내가 어느 길로 돌아가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 알맹이는 잃어버린 채 꺾데기만 남은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